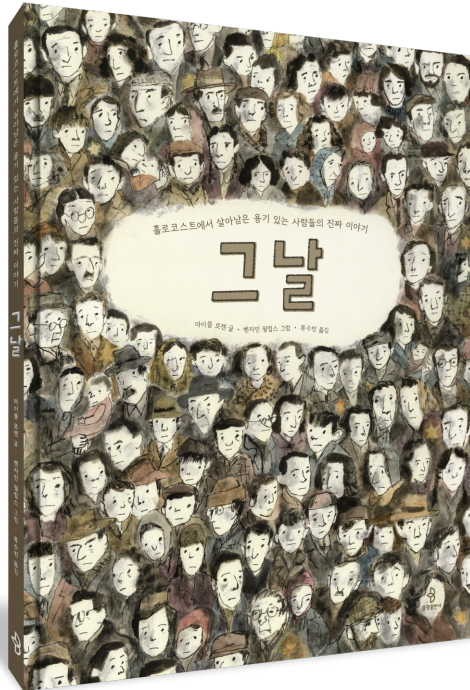


『그날』 독후 활동지



마이클 로젠 글 | 벤자민 필립스 그림 | 류수빈 옮김
불광출판사 | 40쪽 | 초등1~2학년 | 삶에서 온 그림책 5

“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용기 있는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

”

활동2

땅굴을 파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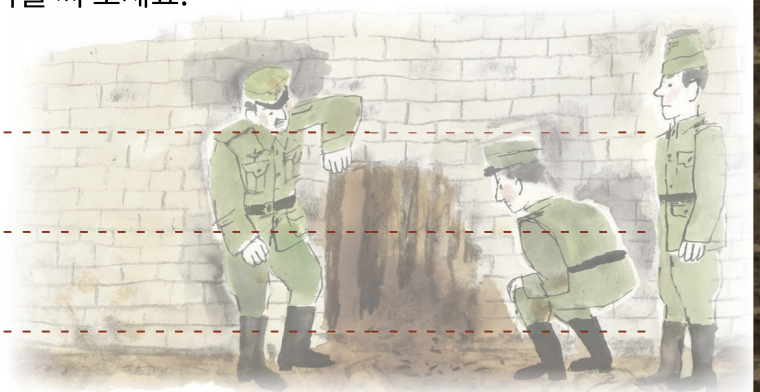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은 땅굴을 파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비록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 시도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며 아래 문제에 답해 봅시다.

1.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터널의 모습을 설명하는 낱말 3가지를 써 보세요.



2. 여러분이 땅굴을 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책의 내용을 참고하여, 터널을 파고 있는 순간의 기분과 상황을 써 보세요. (어둠, 소리, 냄새, 기분 등을 떠올려 보세요.)

3. 터널을 파는 일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이 일을 계속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삶' 또는 '자유'라는 단어를 넣어 여러분의 생각을 써 보세요.



4. 나치는 땅굴 속에서 발견된 포장지에 이름이 적혀 있던 사람을 체포하여 심문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알아냈나요?

활동4 우리들의 얼굴

홀로코스트란, 옛날 나치가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많은 사람을 죽게 한 일을 말합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친구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엄마 아빠이기도 했지요.
이 사람들이 어떤 평범한 삶을 살았을지 떠올리며, 다음 문제에 답해 보세요.

아래는 아우슈비츠로 향하고 있었던 수송 열차칸의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책 속의 그림입니다.



1. 그림 속 사람들을 천천히 살펴보세요.

사람들의 얼굴 표정, 눈, 손, 몸의 자세에서 눈에 띄는 점을 2가지 이상 써 보세요.

2. 그림 속에서 한 사람을 정해 동그라미 치세요.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 묘사해 보세요.

3. 그 사람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이 그 사람의 삶을 상상해 보세요.
가족, 직업, 좋아하던 것 등을 떠올려 자세히 써 보세요.

그림 속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노란 별을 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노란 별을 찾았나요? 찾았다면,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옷 가슴에 노란색 별 모양의 표시를 꼭 달아야 했어요.
이 별은 유대인을 다른 사람들과 쉽게 구별하기 위해 강제로 붙이게 한 것이었어요.
이 별을 달고 있으면 사람들이 한눈에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위험한 일을 겪기도 했어요. 학교나 가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일도 있었어요.

4. 유대인들은 왜 가슴에 별을 달아야 했나요?

- ① 서로를 축하하기 위한 표시로
- ② 멋을 내기 위한 장식으로
- ③ 학교에서 상을 받은 표시로
- ④ 유대인을 구별하고 차별하기 위해서

5. 오늘날에도 사람을 겉모습이나 특징으로 판단하는 일이 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고, 왜 그런 행동이 문제인지 써 보세요.

활동5

희망의 이름

수용소라는 무서운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책 또한 유대인 가족의 실제 생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희망에 대해 생각하며, 다음 문제를 읽어 보세요.

1. 희망을 가진 사람은 행동합니다. 이 책에서 사람들에게 아직 희망이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 준 사건이나 행동을 모두 찾아 써 보세요.

2. 기차에서 뛰어내려 다친 아버지를 한 부부가 발견하고 숨겨주고 치료해 주었지요. 이 부부의 행동 덕분에 아버지는 어떻게 되었나요?

3. 희망을 잃었거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다시 희망을 전해 주는 일입니다. 나도 이처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 준 적이 있나요? 또는 누군가가 나에게 희망이 되어 준 적이 있나요? 자신의 경험에 대해 써 보세요.



다음은 <안네의 일기>의 일부입니다. 이 책은 전쟁 중 유대인으로서 숨어 지내야 했던 한 소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기입니다. <그날>과 마찬가지로 홀로코스트 시기를 배경으로 하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두 이야기를 비교하며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그리고 보면 우리는 행복한 거죠. 수백만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요. 여기는 조용하고 안전합니다.
지금은 과거의 재산을 탕진하며 살아가는 거지만, 우리는 형편을 잊고 전쟁 후의 일에 대해서로 얘기하거나, 새 옷이나 새 구두를 꿈꾸며 설레기도 합니다.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절약해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전쟁 후에는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애써야 하는데도 말이에요.

4. 안네는 힘든 상황에서도 왜 자신이 ‘행복하다’고 말했을까요?

5. 책 속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옵니다.

하루를 견뎌내고, 또 하루.

하루하루. 그리고 또 하루.

이 글을 안네의 일기의 내용과 연결해, 이 문장이 담고 있는 뜻을 설명해 보세요.



해답

<활동1: 책 내용 이해하기>

1. ③
2. ③
3. ②
4. 포장지
5. 메다르 부부
6. 아우슈비츠

<활동2: 땅굴을 파는 사람들>

1. 예시답안: 두려움, 희망, 걱정
2. 작은 소리에도 들킬까 봐 두근두근 심장이 빨리 뛰다.
손은 아프고 몸도 힘들지만,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계속 참고 판다.
무섭지만, 꼭 살아서 나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다.
3. 그 이유는 다시 자유롭게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힘들고 무섭지만, 밖으로 나가면 다시 삶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4. 땅굴을 파고 있던 사실과, 함께 도와준 사람들에게 대한 정보를 알아냈다.

<활동3:저 멀리 어딘가>

1. ③
2. ②,③

<활동4: 우리들의 얼굴>

1. 사람들의 얼굴이 많이 지쳐 보이고, 슬프거나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다. 눈은 초점이 없거나 멍한 느낌이다.
4. ④
5. 옷이 낡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가난하거나 이상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행동은 상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어서 공평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이다.

<활동5: 희망의 이름>

1. 사람들이 위험한데도 몰래 땅굴을 파며 탈출을 시도한 일, 기차에서 뛰어내린 아버지를 한 부부가 숨겨 주고 치료해 준 일,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 도와주고 포기하지 않으려 한 행동들이 희망을 보여 준 모습이다.
2. 부부의 도움 덕분에 아버지는 다친 몸을 치료받고, 붙잡히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4. 안네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족과 함께하며 작은 일상을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또 전쟁이 끝난 뒤의 삶을 꿈꾸며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5.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더 나은 날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안네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는 마음을 보여 준다.